

'97. 1/4분기 석유수요 및 향후전망



박 광 배

〈 유공 마케팅기획팀 과장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석유 수요는 70년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80년대초에는 2차 석유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증가세가 잠시 둔화되었으나, 90년대 들어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명분하에 안정적 유가체계의 유지, 높은 경제 성장률 지속,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차량 증가율 급증

(표-2 참조) 등으로 9%~26%의 높은 증가세 (표-1 참조)를 보여 왔다.

이러한 석유 수요의 급증으로 우리나라는 '91년 세계 제 12위의 석유소비국에서 '96년에는 세계 제 7위의 소비국으로 올라섰으며, 석유 수입량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 4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96년 하반기 들어 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한 교육세 부과 및 특소세 인상, 원화 환율의 급등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대폭 상승되면서 수요가 크게 둔화되었

고, 급기야는 '97. 1/4분기 국내 석유류 수요 (석유화학용 나프타/LPG, 사내판매, 한전, 국내 정유사 이외 공급분 제외 기준)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지난 '86년 (0.1% 감소)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1/4분기 수요가 감소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그 원인 및 향후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1〉 석유류 수요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요(백만배럴)	356.3	424.7	514.2	564.6	621.5	677.2	721.1
전년대비 (%)	25.9	19.2	21.1	9.8	10.1	9.0	6.5

〈주〉유개공 자료(내수) 기준

〈표-2〉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등록대수(천대)	3,395	4,248	5,231	6,274	7,404	8,469	9,553
전년대비 (%)	30.0	25.1	23.1	19.9	18.0	14.4	12.8

2. '97. 1/4분기 수요

(석유화학용 나프타/LPG, 사내판매, 韓電 국내 정유사 이외 공급분 제외 기준임)

정부는 지난 1.15일 저정장을 감수하고 '안정우선'을 기조로 하는 '97년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97년 약 2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무역적자의 개선과 '96년 순수입액이 약 163억달러 었던 과도한 석유소비의 역제를 위한 고유가 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즉 '97. 1/4분기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의 근원적 요인은 정부의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정책전환이며 아울러 석유 소비 증가를 주도했던 요인들의 악화 또는 소멸과정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97. 1/4분기중에는 대규모 파업, 부도, 환율상승 등 경기불황의 여파('97.1/4분기 GDP 성장률 4.6%)도 전년동기 대비 1.0% 수요 감소를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97. 1/4분기 석유수요 (표-3 참조)의 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유가의 대폭상승(표-4 참조)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의 수요증가세 둔화/감소, LNG배관망 확대에 따른 LPG 수요 증가세 둔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B-C 수요 증가세 둔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휘발유 사용 승용차의 경우, 연료비 부담 증가(월 130리터 사용시 약 27천 원 추가부담), 주차료 인상, 대중교통여건 개선 영향으로 출퇴근 사용율이 감소되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개선되는 등 운행행이 대폭 감소되어 승용

차 대당 휘발유 사용량이 1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참조)

경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산업생산 둔화에 따른 화물 운송량 감소, 경유가격의 지속상승에 따른 어업용 수요 감소, 난방용 경유의 등유, LPG, 전기로의 수요 고 급화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동기대비 9.4%나 크게 감소하였다. 실제로 (주) 동방 등 주요 육상 운송업체들의 화물운송량은 업체별로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96.11월 이후 매월 5%씩 줄고 있으며, 또한 면세유를 쓰고 있는 농가 및 어촌에서는 연료비 부담증가로 농사 및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

한편 '96년에 등/경유간 소비자 가격의 역전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17.5%의 증가세를 보였던 등유 수요는 난방용 경유 수요 일부가 여전히 등유로 잔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7.1/4분기중 예년 평균기온 대비 0.3°C (1

〈표-3〉 '97.1/4분기 주요 유종 수요 증감률

	LPG	휘발유	등 유	경 유	B-C	계
전년동기대비 (%)	0.4	0.1	4.2	-9.4	1.8	-1.0

〈표-4〉 주요 유종 소비자가격 및 상승율

(단위 : 원/ℓ)

	96.1월 가격	97.1월 가격	증가율(%)
보통휘발유	624	829	32.9
등 유	295	388	31.5
저유황경유	261	382	46.4
저유황 B-C	141	189	34.0

주) '97. 1월 가격은 (주)유공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 기준이며 저유황B-C유는 대리점 판매가격 기준임

〈표-5〉 승용차 대당 휘발유 사용량

	96. 3월말	97. 3월말	증감율
승용차량대수 (천대)	6,221	7,031	13.0%
대당 사용량 (ℓ/대, 월)	134	118	-11.9%

월)~ 2.3°C(3월) 상승되고 가스보일러 판매가 기름보일러 판매를 앞지르는데 신규 난방수요의 정체로 전년 동기 대비 4.2%증가에 그쳤다.

LPG는 '96.12월 LNG배관망의 확대(부산)에 따른 도시가스용 프로판의 LNG전환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4%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유가상승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체 B-C의 LNG, 경유, 석탄으로의 대체로 산업체 B-C수요가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다. 반면 '96년 하반기 국내정제시설의 대폭증설로 공급능력이 증대('96년말 기준 CDU 능력 : 2,438천 B/D)됨에 따라 병카링 판매가 호조를 보여 병카링용 경유, B-C수요가 각각 19.3% 21.7%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3. 향후전망

'97.2/4분기 이후의 수요도 1/4분기의 수요 둔화 및 감소추세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6참조) 석유 자원의 태생적 속성인 불안정성,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원유수출 재개 등에 따라 국제원유가의 안정세가 예측되기는 하나, 국내 경기 불황의 지속(표-7참조), 무역적자 심화 해소를 위한 석유류 수입액 감축 추진,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및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高油價 정책의 지속 추진등이 수요

억제요인으로 당분간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 그룹의 경우 경영효율을 높이고 정부의 에너지저감 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설비투자 및 절전형 제품 개발등 '에너지 절감계획'을 시행중에 있으며 수송용 유류 수요의 선행지표인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97.4월 들어 다소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97.1/4분기의 경우 월평균 57천대로 전년 동기 87천대의 65% 그친것으로 나타난 것도 수요 둔화/감소를 예측케 하는 주요 요인 및 지표이다.

유종별로 보면,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는 '96년 하반기의 수요감소 영향과 '97.4/4분기 경기회복 예상으로 수요둔화/감소폭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LPG는 LNG배관망의 확대(구미, 울산지역)로 약 1.9%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97년은 고유가와 유가자유화 시행으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대단히 높아진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국내 유가수준을 OECD 비산유국 수준으로 계속 인상시켜 에너지 수요를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인데다 '98년도도 기후협약 재협상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유가의 추가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국내 유가수준은 높은 편이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감소도 한계에 와 있고 유류 관련 세금의 부과 증대로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등 고유가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절약 운동에 의한 자발적 수요 둔화보다는 고유가에 의한 인위적 수요둔화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동시적 관점에서의 석유류 수요는 향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GDP성장을 범위내에서 소폭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표-6> 주요 유종별 97년 수요 증감율 추정

	LPG	휘발유	등유	경유	B-C	계
전년대비 (%)	-1.9	3.2	4.9	-4.5	-4.2	-1.0

주) 석유화학용 나프타/ LPG, 사내판매, 한전 국내정유사 이외의 공급분 제외기준

<표-7> 주요 연구기관별 97년 국내경제 수정전망

	국내총생산 (GDP)	경상수지
KDI	당초 6.4 → 수정 6.0%	당초 △ 155억 → 수정 △ 196억 달러
KIET	당초 6.4 → 수정 5.7%	당초 △ 178억 → 수정 △ 216억 달러